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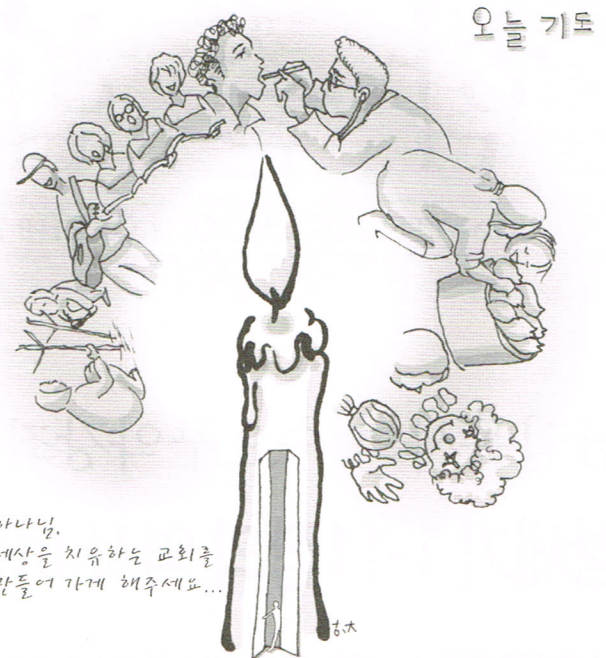
모테트 15주년기념, 하이든의 <천지창조> 협연

1500명이 가득메운 음악의 향연

지난 10월5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모테트 합창단이, 창단15주년 기념음악회 시리즈 세 번째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지휘 박치용, 소프라노 신지화,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독일어로 전곡 연주하고 실시간으로 한글자막서비스를 하였다.

이날 1500명 이상의 관객이 콘서트홀을 가득메웠다. 기념음악회 시리즈 세 번째인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헨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3대 오라토리오라고 불린다. 총 3부 32곡으로 구성된 <천지창조>는 성서를 기초로 하고 존 밀턴의 서사시 <실락원>을 기본으로 한 영어 대본에 독일의 슈비텐 남작이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하이든은 독일어 가사로 인해 더욱 더 빛나게 된 <천지창조> 작곡을 통해서 신에 대한 감사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1989년 창단 이래, 우리교회 시온찬양대 지휘로 봉사하는 박치용집사가 상임지휘를 맡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활동을 돕고 있다.



목요모임 담임메시지

하늘로서 내려오는 카리스마

10월 7일 주님의교회와 예수전도단이 함께 협력하는 목요모임은 문동학 목사가 설교했다.

30대를 중심으로 모여있기에 직장에서, 생활에서, 맡겨진 일에 있어 '권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권위의 회복을 권했다. 설교를 대략 요약해 본다.

진정한 권위는 법적, 이성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저 사람은 이유없이 존경스럽다', '생활속에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권위는 권력(힘)과 지위(title)가 함께 있을때 가장 좋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전통적인 권력이 있었지만 대중들로부터의 권위는 상실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권력이나 공식적인 지위나 전통적인 권위는 없었으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충만했다. 그럼 권위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진심해야 한다 등 4개로 나눠 설명했다.

'권위'를 사모하라 그래서 '그대앞에 서면 왜 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 형제가 하는 것이면 따르겠다', '이 자매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이 형제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카리스마를 지녀야 진정한 권위가 있고 진정한 존경도 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렇다

고 종교적 냄새나 '척'하는 부정적 냄새를 풍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를 지니길 당부했다.

목요모임에 참여한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간구하는 기도소리와 찬양이 많은 물소리를 듣는 듯 하다.

예수전도단, 30일간의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전개

본교회 협력목사인 문희곤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전도단에서는 10월15일부터 11월13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은 1992년 중동지역에 모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지도자들은 무슬림 세계를 위해 기도할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동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느꼈고,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월에 맞춰 동일한 기간에 기도운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라마단 금식월은 무슬림의 음력에 따르므로 해마다 날짜가 달라진다. 이번 2004년에는 10월15일에 시작하여 11월13일에 끝나게 되는데,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금식기간은 기도를 시작한지 30일 이후, 보름달이 새로 뜨는 날에 끝난다.

라마단 금식월 기간동안 기도하는 것이 무슬림의 금식

과 기도관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슬림들의 영적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전도단에서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을 계획하면서, 30일 기도기간동안 매주 또는 2주에 한번씩 그룹기도모임과 개인기도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창세기 1-11장의 역사 이전 실존적 원역사 다뤄

아담과 하와는 개인적인 차원의 죄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을 탓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고, 가인은 형제간에 발생하는 불공평한 처우에 따른 시기, 질투의 죄를 말하며, 노아는 특정 자녀를 향한 부모의 편애를 의미하며, 바벨 사람들은 집단적인 죄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를 이리한 죄와 별, 그리고 그것과는 불연속적인 차원에서 공황을 말씀하시는 순환(cycle)을 반복하시다가 바벨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벌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공황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순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을 진행하신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새롭게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본격적으로 그 막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올리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창 12-50장까지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강의하게 된다.

교역자와 함께 운동장을 누빈 청년체육대회

10월 3일 주일 4부예배 후 청명한 가을 햇빛을 받으며 청년부는 교역자들과 체육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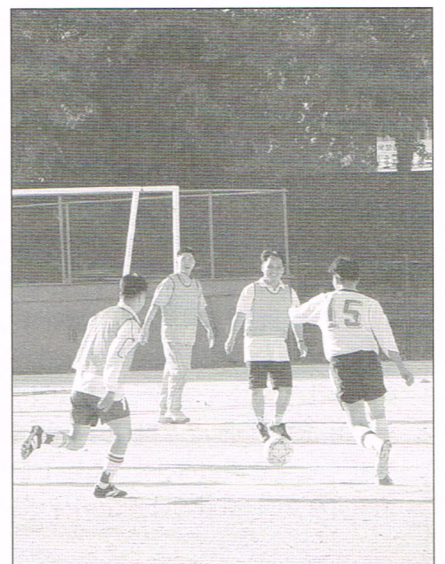
모두가 함께 모여 가볍지 않은 체조를 시작으로 몸풀기에 들어갔다. 먼저 남녀청년들이 함께 피구를 했다.

한껏 운동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또 공을 간신히 피하며 도망다니느라 바쁜 청년도 있었다. 나중에는 한 팀에 자매 홀로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아 박수를 받기도 했다. 고대하는 메인대회가 열렸다. 바로 문동학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교역자들과 함

께 뛰는 축구시합이다.

힘이 넘치는 청년이 이길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외로 교역자들의 뛰어난 축구실력으로 4대 2로 교역자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문동학 담임목사의 몸을 맞부딪히며 뛰어들거나 공을 빼앗는 두드러진 활약에 관중했던 다수의 청년들은 감탄에 마지 않았다. 청년1부, 2부, 교역자 3팀으로 나눠 줄넘기대회를 했다. 줄넘기대회는 가장 연령이 낮은 청년1부가 완승했다. 모두들 줄넘기를 즐기며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마지막은 농구시합

이다. 숨겨져 있던 실력이 발휘되어 멋진슛이 쏟아졌다. 한 청년이 자발적인 사회를 맡아 관중을 폭소에 빠뜨리고 있었다. 오후 6시 30분정도 되어 아쉽게 체육대회를 마치고 교회지하식당으로 내려가 푸짐하게 차려진 뷔페로 저녁식사를 했다. 편안한 복장으로 운동하고 나니 더욱 친밀해지고 웃음꽃도 피우며 체육대회는 마무리되었다.



영어로 배우는 '영'의 복음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교육전도실에서는 하반기 양육과정과목중의 하나인 'A Spiritual Journey, John'이 진행되고 있다.

이 수업은 요한복음을 영어로 배우는 시간이고, 강사는 김현령전도사이다. NIV성경(새국제성경)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개요로부터 그것의 특징과 타복음서와의 비슷한 점과 구별된 성격 등을 개괄적으로 공부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구절의 해석뿐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현재 13명의 성도들이 수강하고 있는 이 과정은 11월30일까지이고,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될 것이다.

제자의 삶을 고민하는 모임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우동윤목사가 진행하는 제자의 삶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초등부실에서 모인다. 제자의 삶과 연관된 성경 본문을 가정에서 QT묵상한 후 느낀점을 기록해서 가지고 온 다음 화요일 모임 때 함께 나눈다. 6~7명씩 둘러앉아 나누는 시간은 진지하고도 열기가 느껴졌다. 말씀에 비취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제자로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다. 다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QT나누기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주셨다. 또 한 주에 한 권의 지정된 책을 읽고 느낀점을 기록하여 제출 한다고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나태한 우리 삶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한다.

첫시간 40여명 참석해

학부모기도회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초등부실에서는 학부모 기도회가 열렸다. 40여명의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이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12번의 기도회를 통해

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녀와의 친밀함, 그리고 자녀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묵상과 찬양이 실린 책자가 배부되었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매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기도회는 12월 18일까지 계속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구역지도자모임 첫시간

'리더십과 비움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



구역지도자모임은 10월 6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요일마다 12월 8일 종강까지 9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은 강의, 발표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같이 찾아보고 2~4명으로 짝기도를 하는 등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 가슴이 뜨겁게 되는 모임을 만들어가게 되며, 리더십과 영성개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인호 목사는 '리더십에 있어 권위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권위는 필요없다'고 성도들이 대답했으나 이는 '권위'를 부정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권위주의적' (authoritarian) 리더십일 때 개인/그룹은 위축되고 피동적인 '악한 영성'이 되며, '권위있는' (authoritative) 리더십은 개인/그룹으로 자발성을 갖게 하고 지도자에게 가까이 가서 더 응답하게 된다.

리더십의 의미와 비움의 리더십, 그리고 비움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비움에는 자아성찰적 비움, 타아성찰적 비움을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옆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 뒤 이인호목사는 타구역의 구역장이나 권찰에게 이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연락을 취하며 연합할 것을 당부했다. 10월 13일은 '구역모임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2여선교회 28명이 함께 노방전도 나가

10월 5일 화요일 제 2여선교회 월례회 모임으로 두번째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다. 함께 한 박의일전도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제사'란 제목으로 예배를 드린 후 모인 28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은 전도사의 선창의 따라 '예수님 하라하시니 나는 한다'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전도의 결의를 다졌다. 점심식사후 불펜과 전단지 한 세트와 된 2천 점의 선물을 들고 각기 원하는 장소(강남역, 잠실역, 선릉역, 송파역, 종합운동장역등)로 10개조 이상의 조로 흩어졌다. 더 많이 나누어주려고 서로 더 가져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던 2여선교회 임원들은 평소 모이는 15명 정도여서 노방전도에 20명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 2

여선교회는 21명, 4, 5여선교회에서 7명으로 더 많이 참여하게 되어 넘치도록 예비해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였다. 이번 노방전도에서 감사했던 점은 다른 여선교회에서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 특히 젊은 4, 5여선교회 참여는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듯 했다. 노방전도를 마친 후 교회 설만찬물가에서 다시 모인 회원들은 전도중에 생긴 일들과 느낀 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영적인 침체에 있었는데 이번 노방전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여졌다. 죽었었는데 살았다."라고 간증까지 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5여선교회에서 참여한 4명의 회원은 특별히 기도모임도 따로 있어서인지 살아서 꿈틀댈을 느끼

게 했다. 마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났었다는 듯 더 많이 하고 싶다고, 자신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전단지를 더 달라고까지 했다. 제2여선교회에서는 봄, 가을로 나눠 두번 노방전도를 계획했다. 처음 노방전도를 시도할 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해서 용기를 내야했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다. 또 혼자 불안간 그러는게 아닌가 극복해야겠다. 그러나 그냥 시도했다.

첫 노방전도보다 두번째는 덜 떨었다. 교회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도 '교회'만 적어놓으면 이단을 구분하지 못할까 싶은 마음에 이름도 적었다. 전도하고 나서는 모두들 좋아했다. 내면에 누가 불만 켜지면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은혜의 시간이었다.

오늘4부, 일본복음송가수 모리유리 내한공연



모리 유리는 일본 NHK 방송국 전속 가수로서 활동했으며, 그 후 복음성가 가수로서 현재까지 일본전역과 한국, 미국, 대만 등 나라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해왔다. 샬롯 처치와 비슷한 외모에 가창력이 뛰

어난 그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주님의교회에 방문하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지난 해 4부예배에 참석하여 모리 유리의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였다.

아장아장 걸음으로 헌금 하네요

주일날 아침을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분주함 가운데서도 즐겁다. 아가들의 천진스럽고 귀여운 모습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엄마아빠의 팔에 안긴채 예배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기를 쓰

다가도 선생님의 품에 안기는 천진함 선생님이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감상하고 있더니 이제는 어느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아가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다함께 찬양하며 울동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예배가 아가들에게 습관이 되고

(2면에서 계속)

도서관, 어린이 만화도서 300권 구입예정

예배에 들어오도록 도서관을 위해 30명의 봉사자가 교대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인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1층로비의 자원봉사연결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책을 대출한

생활화 되어가는 것이다. 이제는 헌금기도 시간 모두가 드린 헌금통을 여러 아가들이 함께 들고 아장아장 걸음으로 서로 앞다투어 나간다. 헌금기도를 마치고 자랑스럽게 퇴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신앙이 쌓여가면서 우리 아가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인물들이 될 것이다.

후 반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작년에 대출된 책들도 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출기한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주일예배의 사이 시간대에 도서관은 어른들과 어린이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자원봉사하는 어느성도는, 협소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교회소식

1. 새가족환영의날

행사가 10월 16일(토) 오후 6시에 3층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 까지 등록하신 장년 새가족을 초대합니다.

2. 마라톤대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가 다음 주일(17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헌혈행사

행사가 다음 주일(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당앞에서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나눔의 물품

다음 주일(17일) 로비에서 나눔의 물품을 받습니다.
(옷, 신발, 책, 가전제품 등)

5. 학부모 기도회

수험생자녀를 둔 학부모기도회가 12월 18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인도: 김현령 전도사)

6. 유소년축구클럽 훈련

유소년축구클럽 훈련 관계로 매주일 오후 1시 10분 이후에는 운동장에 주차하신 차량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7. 교회 요람

교회 요람에 수록될 칼라사진을 받습니다.
1층 자원봉사데스크로 내어주십시오.

8. 모집합니다

King's Kids와 King's Teens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세미나를 통해 중보기도사역 업그레이드

기독교환경연대와 연합하여 실시하는 수강생들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환경통신강좌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10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의 모임을 통하여 점검하고 삶의 환경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이번 모임을 통하여 내년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부 사역을 구상하고, 사역팀을 형성해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임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인 성도님은

"환경교육이 너무 추상적이다."고 말하며 관념에 그치는 환경교육 때문에 교사인 자신도 환경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을 던지고 있는 이 모임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느낀 점들, 개선할 점들을 나누는 작은 소그룹이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선교부, 선교현장방문을 계획

농어촌선교부에서는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1박 2일로 전라도 지방의 지원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방문일정을 잡고 있다. 이번 방문 일정은 첫째날 7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전북 완주군 소재 가은교회를 방문하고 전남 여수로 출발, 여수에서 2시간 가량 배를 타고 거문도 덕촌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

날 주일에 덕촌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순천으로 출발하여 순천 소재 로템교회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대연교회, 곡성 오곡새순교회, 봉조교회를 방문하고 귀경하는 일정을 세웠다. 농어촌선교부에서 이번 일정에 참석인원은 4명이며 11월중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지방의 교회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1시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99호 발행일 : 2004년 10월 10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담임목사의 수요구약강좌

창세기 1-11장의 역사 이전 실존적 원역사 다뤘



담임목사는 매주일 수요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구약개론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주는 창 1-11장을 중심으로 원역사를 다루었다. 담임목사는 원역사의 의미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된 먼 옛날의 이야기라는 뜻보다는 인간 실존의 밑바닥에 자리하는 시간을 초월한 보편적 원리나 원칙같은 이야기로 설명하였는데,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담과 하와, 가인, 노아, 바벨 사람들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그 3가지 범주는 죄와 벌 그리고 그것과 불연속적인 하나님의 공휼이다.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며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헤세드)의 하나님 모습이다. 그러나 벌을 주시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여전히 공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 고통당하는 사랑을 뜻하는 라흠의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보다 적극적인 거역이었으며, 그에 대한 벌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과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이었고, 이어지는 공휼은 가족육이었다. 가인의 죄는 살인이었으며, 그에 대한 벌은 유리방황함이었고, 이어지는 공휼은 보호였다.

노아와 당대 사람들의 죄는 총체적인 죄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창조질서를 설명하려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간격을 허문 심각한 범죄였으며, 그에 대한 벌은 홍수였고, 이어지는 공휼은 노아 가족을 통한 남은 자였다. 바벨 사람들의 죄는 교만(자치와 자기방어)이었고, 그에 따른 자연스런 형벌은 상호 의사소통의 단절과 지면에서 흩어짐이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형벌의 공통점은 모두 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바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공휼이 언급되지 않고 원역사는 11장으로 끝난다. (2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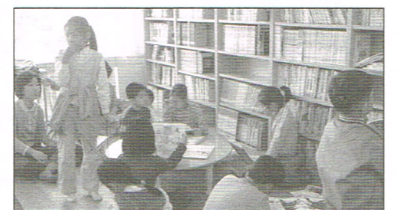
7월이후 등록한 새가족을 모십니다

10월16일, 오후6시 3층 소년부실로 오세요

새가족사역팀이 주관하는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가 오는 10월 16일 (토) 오후 6시에 소년부실(3층)에서 있게 됩니다. 이 날 참석할 대상은 200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이 속한 구역의 구역대표와 교역자 및 교구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된 순서로는 부폐식사를 통한 식탁교제와 축하공연, 새가족의 간증, 담임목사와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 등입니다. 환영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미리 교역자와 교구리더를 통해 참석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도서관, 어린이 만화도서 300권 구입예정

주님의 교회 도서관에서 이번 가을을 맞아 300권의 어린이를 위한 건전한 만화도서를 들여올 예정이다. 도서관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 열람객들에게는 신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주님의 교회 도서관에는 3000여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 이 곳은 주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3면에서 계속)



요람 사진 촬영, 11월말까지 1층로비에서

2005년요람은 컬러판으로 제작해

2005년도 교회요람제작을 위하여 요람위원회가 지난 10월5일 모였다. 올해 요람배부가 2월말에 이루어져서 구역장을 비롯 사역자들에게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2005년도 교회요람은 신년주일에 배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2005년 교회요람은 컬러사진으로 인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진이 없는 경우는 교인사진수첩으로서의 본래적 의미에 맞지 않는 지적에 따라, 컬러사진을 제출하거나 매주일 1층로비에서 운영되는 무료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를 요람위원회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무료사진관은 오늘 주일부터 11월28일 주일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주일예배 사이시간에 1층로비에서 운영되게 된다. 요람제작에 있어서 전교

우들의 사진수첩부분은 10월말까지 구역장 등 구역사역자를 통하여 정리하고, 10월24일과 31일 2주에 걸쳐 교적초안을 게시하고, 11월21일과 28일 교적최종게시를 하기로 하였다. 교우들은 이 기간에 본인의 교적내용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전교우 최종게시물 열람 확인 후, 임직자에 의한 내용 확인 및 교정 과정을 추가하였다. 장로,권사,안수집사를 대상으로 12월5일과 12월 2주간, 주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4층 당회원실에 요람에 실릴 모든 내용을 열람 및 확인 수정할 수 있다. 요람이 제작되면 구역장을 통하여 구역별로 세대당 1권씩 배부된다. 사진이 없는 교우들의 경우는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기를 당부하며, 동명이인의 경우, 이름

뒤의 A,B 표기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회요람의 수명이 1년인 관계로, 구역활동이나 교회출석등이 1년이상 확인되지 않고 연락처등이 변경된 후 교회에 알리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교우의 경우는 2005년도 교회요람에서는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교적에는 변함이 없으며, 출석확인 및 연락이 되었을 경우 이듬해 요람에는 다시 실리게 된다.

구역지도자모임 첫시간

'리더십과 비움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

수요성경공부 후 구역지도자모임이 중예배실에서 있었다. 구역장뿐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권찰 등으로 약 150여명이 모였다. 이인호 목사가 영국에서 쓴 박사논문을 통해 교회의 '리더십과 비움의 영성'을 가르쳤다. (3면에서 계속)

다음주일, 마라톤대회 열려

제13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다음주일(10월17일) 잠실종합경기장에서 열리게 된다. 참가인원 2000명, 10시에 경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잠실주경기장을 출발하여 송파역과 탄천교, 판교분기점을 지나 하오고개입구를 반환점으로 하고, 탄천1교를 돌아오는 코스이다. 마라톤 코스 및 자세한 내용은 seoul-wheelchairmarathon.or.kr로 들어가면 된다.